

광주시향 청사진 내놓은 새 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베토벤 '운명' '합창' 말러 '5번'도 기대하세요

크리스티안 루드비히(33)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는 지난 21일 독일에서 귀국, 광주시향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취임 연주회(4월 1일)를 준비중이다. 28일 기자들과 만난 그는 "내가 긴장하는 것처럼 단원들도 긴장하고 있고, 그 긴장감 속에 좋은 연주를 하려는 마음들이 담겨 있어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임 지휘자가 그리고 있는 시향의 밑그림을 살펴봤다.

▲베를리오즈로 4월1일 '첫만남'
취임연주회(4월 1일 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그가 선보일 곡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다. 그는 선곡과 관련, "1920년대 거장의 개혁적인 작곡가 음악사에서도 의미있는 곡"이라며 "오케스트라를 통해 짝지어 내고 싶은 것들이 많이 담긴 곡"이라고 설명했다.

베토벤의 '황제'를 함께 협연할 이진상(〈관현악스 참조〉)씨 역시 그가 직접 선택했다. 반면 전 이씨가 독일에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관람한 그는 "쇼팽에게 중요한 게 집중과 에너지다. 이진상의 에너지는 대단하다. 경험도 풍부하고 개방적인 연주자라는 생각이 언젠가 꼭 한번 같이 연주하고 싶었다"고 밝

혔다.

▲6월 유럽 지휘자 초청
일단 클래식 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루드비히호(號)를 통해 앞으로 어떤 곡들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루드비히는 "광주에서 막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세한 공연 스케줄은 준비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일부 레퍼토리만 소개했다.

취임연주회에서 베를리오즈와 베토벤을 선택한 그는 일단 5·18 기념공연(5월 13일)으로 광주 역사에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베토벤 5번 교향곡 '운명'과 베토벤의 '레오노레' 서곡을 들려준다. 연말에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하며 말러의 '교향곡 5번'도 연주 레퍼토리로 확정했다.

"유럽 지휘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크리스티안은 6월 3일 연주회에 외국인 지휘자를 초청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시향과 협연하지 않은 다양한 국내의 솔리스트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0명 규모 오디션, 리허설 현장 공개
올해 광주시향이 소화할 연주회는 정기 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모두 25~28회

수준이다. 이중 루드비히가 직접 지휘봉을 잡는 연주회는 12회(2012년 3월까지)다. 그는 호흡을 얻었던 교도소 연주회 등은 계속 이어가고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음악으로 만나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향과 광주 시민들의 끈끈한 연대도 강조했다. 리허설을 공개하고 지휘자, 솔로리스트,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는 등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친구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주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해요. 현재 광주시향은 구성원이 부족해 음악회마다 객원 연주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계약 당시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 부분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단원들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원된 단원(11명)에 대해 5월께 대규모 오디션을 진행하고 연주자 실력 향상을 위해 여름에는 유럽 정상급 연주자를 초청, 관악 파트 워크숍도 열 계획이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판타스틱한 이진상 무대 다시 한번 만나요"

광주시향 '황제' 협연 이어 내달 3일 광주서 독주회

"이진상은 판타스틱한 연주자입니다." 오는 4월 1일 자신의 취임연주회에 피아니스트 이진상씨를 초청한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는 28일 이씨에 대해 "에너지틱하고, 집중력이 강한 연주자"라고 극찬했다.

이씨가 광주 시향과 베토벤 '황제' 협연 무대에 이어 독주회를 통해서도 광주 시민들을 만난다.

3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레퍼토리는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는 리스트의 곡들 위주로 꾸렸다. 리스트의 '바하 테마에 의한 환상곡과 푸가', '오페라 '디골레토' 주제에 의한 페르레이즈' '오페라 파우스트 중 대왈츠' 등이다. 그밖에 바흐의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d단조', 부조니의 '사콘느' 등도 연주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독일 쾰른 음대를 거친 후 스위스 제자 안다 쿠크르(2009년)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으며 쾰른국제피아노콩쿠르, 홍콩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도 우승했다. 현재 비엔나에 거주하는 이씨는 스타인웨이 오스트리아 예술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티켓 가격 5만원~3만원.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



를 거친 후 스위스 제자 안다 쿠크르(2009년)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으며 쾰른국제피아노콩쿠르, 홍콩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도 우승했다. 현재 비엔나에 거주하는 이씨는 스타인웨이 오스트리아 예술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티켓 가격 5만원~3만원.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

창단 30년 맞은 광주오페라단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무대에

29~30일 문예회관에서 정기공연

올해로 창단 30년을 맞는 광주오페라단(단장 김기준)이 36회 정기 공연 작품으로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를 무대에 올린다. 29~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지난 1982년 창단된 광주오페라단은 박재욱(광주교대 교수)씨의 연출로 첫 작품 '춘향전'을 무대에 올린 이래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아이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공연하는 '리골레토'는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희곡을 모티브로 한 오페라다. 중세 이탈리아 시대의 호색가 만토바 공작의 사중을 드는 익살꾼 리골레토는 만토바 공작을 부추켜 궁정 귀족들의 부인이나 딸을 농락하게 하면서 쾌감을 느낀다. 그러다 자신의 딸 질

다머지 공작이 유혹해 겁탈하자 분노한 그는 자객을 시켜 공작을 죽이려 하는데...

테너가 부르는 '여자의 마음', 질다가 부르는 '사랑스런 그 이름' 등 친숙한 아리아가 인상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주인공 리골레토 역은 김남경·김지영·조형빈씨가 맡았고 비극적 여주인공 역인 질다는 구성희·박경숙·김선희·임현진이 캐스팅됐다.

그밖에 호색한 만토바공작 역은 김원중·강동명·김호연이 출연하며 변육씨의 지휘로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광주피아모니남성합창단, 광주여대 무용과가 함께 무대에 선다. 연출은 유희문 씨가 맡았다.

티켓 가격 7만원~1만원. 문의 062-520-88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만화가 이원복 강좌... 31일 광주교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광주MBC와 광주교육대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 문화 이해 공개 강좌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두번째 강좌가 31일 오후 4시 광주교육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의 초청강사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저자 만화가 이원복(65·덕성여대 교수·사진)씨. 이씨는 '동서양의 만남과 충돌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부상'이라는 제목



으로 시민들을 만나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이씨는 "21세기 만나라 이웃나라" "세계사 산책" "신의 나라 인간나라" 등을 냈다. 문의 062-520-4332.
/김대성기자 bigkim@

범대순, 시집 '산하' 전편 낭송회... 내달 2일 드림아트홀

최근 무등산 산행 1000회 기념 시집 '산하' (문학들려봐)를 출간한 원로시인 범대순(81·전남대 명예교수·사진)씨가 이번 시집에 수록된 시 전편을 낭송하는 노익장을 과시한다.

시인은 오는 4월 2일 오후 8시 광주시 남구 드림아트홀에서 시집 '산하' 전편 낭송회를 가질 예정이다.

범 시인은 "이번 낭송은 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삶에 있어 또 다른 도전"이라며



"점차 시를 잃어가고 있는 시집에 시의 부활을 염원하고 젊은이들이 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것에 대한 작은 권고"라고 밝혔다.

영문학자이기도 한 범 시인은 광주 출신으로 '혹인고수 '아름다운 가난' 등의 시집을 냈다. 문의 062-651-4117.
/김대성기자 bigkim@

인간의 몸이 연출한 아름다움의 극치

류영도 초대전, 4월5일까지 목포문예회관

달빛과 여성의 몸, 이보다 더 관능적인 단어 조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섬세한 묘사와 뛰어난 조형감각으로 여체를 그려내는 류영도의 그것은 다르다. 실오라기 한을 걸치지 않은 그의 그림 속 여체는 달빛을 받아 더욱 도도하다. 관능을 넘어 인간의 몸이 연출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누드화가 류영도씨가 오는 4월5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여성의 몸을 표현한 신작을 선보인다. 여체의 아름다운 곡선을 여백의 미를 강조한 작품과 인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누드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그는 누드화지만 소품이나 비구상 이미지를 사용해 조형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는 작가다. 추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여성의 몸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구성-사랑'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서울, 대전, 광주 등지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문의 061-270-848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i등급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이런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p>상무점 향토사랑 영화시망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p> <p>1관 별관 내부수리중</p> <p>2관 별관 내부수리중</p> <p>3관 비스틀리 (12세)</p> <p>4관 블랙스완 (18세)</p> <p>5관 사랑이 무서워 (15세) / 웨이 백 (12세)</p> <p>6관 마이블랙미니드레스 (15세)</p> <p>7관 로맨틱 헤븐 (12세)</p> <p>8관 레드라이딩 후드 / 지구표 롤링스타즈</p> <p>9관 킹스 스피치 (12세)</p> <p>10관 월드인베이션 (12세)</p> <p>상당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p> <p>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p>	<p>MEGABOX</p> <p>M관 킹스 스피치 (12세) 최고급관</p> <p>2관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 (15세)</p> <p>3관 로맨틱 헤븐 (12세)</p> <p>4관 굿모닝 에브리원 (15세) / 월드인베이션 (12세)</p> <p>5관 사랑이 무서워 (15세)</p> <p>6관 블랙스완 (18세) / 달빛 길어올리기 (15세)</p> <p>7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p> <p>8관 비스틀리 (12세) /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p> <p>9관 히어 에프터 (12세)</p> <p>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료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저시 정상요금 부과</p> <p>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p>	<p>CINUS</p> <p>1관 킹스 스피치 (12세)</p> <p>2관 블랙스완 (18세) / 비스틀리 (12세)</p> <p>3관 히어 에프터 (12세)</p> <p>4관 달빛 길어올리기 (15세)</p> <p>5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p> <p>6관 로맨틱 헤븐 (12세)</p> <p>7관 월드인베이션 (12세) / 레드라이딩 후드 (15세)</p> <p>8관 마이블랙미니드레스 (15세)</p> <p>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p>
---	--	---